

■ 2026 새해설계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지속 가능한 장애인체육 실현에 모든 역량 집중”

공공·민간기업 장애인선수 채용 연계 확대
전문체육 성적 향상·생활체육 활성화 등도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속 가능한 장애인체육 실현을 위해 장애인 체육인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병 오년 신년사를 통해 공공·민간기업 장애인선수 채용 연계 확대, 2026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우수 성적, 2028 제4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 광주장애인체육 제3기 발전위원회 모집 및 운영, 자치구 중심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등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추진하며 모든 광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훈련 여건 향상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 본부와 지역 내 8개 공공·민간기업과 협력해 92명의 장애인체육 선수 일자리 연계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장애인 채용의 사회적 가치와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취업을 통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후원금 조성으로 전문체육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추진, 성적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202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광주는 지난해 10월 ‘2028 제4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2028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며, 광주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을 이뤘다.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21년 만이다. 시장애인체육회는 광주시, 교육청, 광주시체육회와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 기본 방향을 수립 중이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 스마트 체전, 문화·예술 융합 체전, 시민 참여형 체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전 등 4대 목표로 추진될 계획

이다. 제4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 ‘스포츠 도시, 광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올해 전반적인 대회 운영 계획·시설 개보수 추진 계획 등을 광주시와 협력해 나간다.

특히 시장애인체육회는 정선교 추진위원장(대명의식산업 대표이사)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광주 장애인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지역 내 개인·기업인 100명의 발전위원회를 모집해 운영 중이다.

실제 2024년 제1기 발전위원회 1억800만원, 2025년 제2기 발전위원회 1억1200만원의 후원금 조성을 통해 시비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 장애인체육 선수 지원했다. 또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후원금 지원, 전문체육

지도자 강화훈련비

회에도 힘을 쏟는다. 시장애인체육회는 2022년 8월 동구장애인체육회 설립으로 특·광역시 전국 최초 자치구 100%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완료했고, 2024년 시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5개 자치구로 100% 전환해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4개 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 행정직원을 배치해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왔다. 올해는 자치구별 반다비체육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사업 전개를 통해 현장 밀착형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다양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들에게 단

절 없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2026년에도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7만 장애인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을 선도해 나갈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스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원클럽맨’ 이민기 재계약…2027년까지 동행

2016년 데뷔 후 꾸준한 활약…“팬들 믿음에 보답할 것”

프로축구 광주FC가 ‘원클럽맨’ 이민기(32)와 동행을 이어간다.

광주는 12일 지난 시즌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끈 베테랑 플백 이민기와 2년 재계약을 맺고 2027년 까지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민기는 2016년 광주에서 프로 데뷔한 이후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광주 유니폼을 입고 활약해 온 대표적인 원클럽맨이다.

현재까지 리그 통산 172경기에 출전하며 구단 역대 최다 출장 3위에 이름을 옮기고 있다.

꾸준한 출전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이민기는 2022년 K리그2 최다 승점 및 최다 승 기록 달성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구단 K리그1 역대 최고 성적인 3위 달성을 주역으로 활약했다.

해당 시즌에는 K리그1 베스트11 좌측 풀백 부문 후보에 오르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2024년에는 부주장으로 선임돼 선수단 내 중심 역할을 수행

했으며, 2025년에는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며 시도 민구 단 최초

ACLE 8강 진출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재 이민기는 K리그1 통산 135경기 출전으로 구단 K리그1 최다 출장 기록



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주 상무 시절을 포함해 리그 189경기에 출전해 올해 통산 200경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민기는 “프로 데뷔부터 지금까지 한 팀에서만 뛰어왔다는 점이 큰 자부심”이라며 “항상 믿고 응원해주는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경기장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기를 포함한 선수단은 전원 연봉 협상을 마무리한 뒤 동계 전지 훈련지인 태국 후아힌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2025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실업팀육성사업 특별지원’ 공모에 선정, 전국 최초로 훈련장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선수단 회복지원에 집중한다.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선수단 휴식 여건 개선 나선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전국 최초’ 훈련장 휴게실 리모델링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전국 최초로 훈련장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선수단 회복지원에 집중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10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전국 122개 장애인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실업팀육성사업 특별지원’ 공모에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장애인실업팀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른 장애인실업팀 운영 기관은 훈련·경기용품 구입, 전지훈련비 확보 등 선수단 경기력 향상에 직결되는 지원 항목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시장애인체육회는 ‘후식 여건 개선을 통한 회복 지원’ 역시 실업팀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최초로 광주 장애인탁구 실업팀 훈련장 내 휴게실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 진행했다.

지역 내 리모델링 전문 업체인 한센리하우스 광산대리점과 논의, 훨체어 장애인 선수 특성에 맞춘 개별 리커버 및 간이 침대 커스텀 제작과 더불어 조명·바단·벽지공사, 로고 작업 등을 통해 장애인

실업팀 훈련장 휴게실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를 완료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영건(광주시청)은 “먼저 참고 느낌이 나던 기존 휴게실과 다르게 바뀐 휴게실은 프로 축구, 야구팀 라커룸 같은 느낌이나 신기하기도 하고, 광주시청 실업팀 선수로서 자부심도 생긴다”며 “고된 훈련 중간 면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만큼 더욱 훈련에 매진해 올해 2026 나고야 장애인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각 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한민국과 광주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펼치고 있는 탁구 실업팀을 위해 앞으로도 시와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로 선수단 지원 모멘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전국 최초 장애인탁구 실업팀으로 정단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각 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한민국과 광주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펼치고 있는 탁구 실업팀을 위해 앞으로도 시와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로 선수단 지원 모멘트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리모델링 전문 업체인 한센리하우스 광산대리점과 논의, 훨체어 장애인 선수 특성에 맞춘 개별 리커버 및 간이 침대 커스텀 제작과 더불어 조명·바단·벽지공사, 로고 작업 등을 통해 장애인

종 명단은 이번 소집훈련을 거쳐 15일 확정된다. 16개국이 참가하는 풋살 아시안컵은 이번 달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개최된다.

4개국씩 4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를 차지한 8개국이 토너먼트로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 A조에 속한 우리나라팀은 오는 27일 인도네시아, 29일 이라크, 31일 키르기스스탄과 차례로 조별리그를 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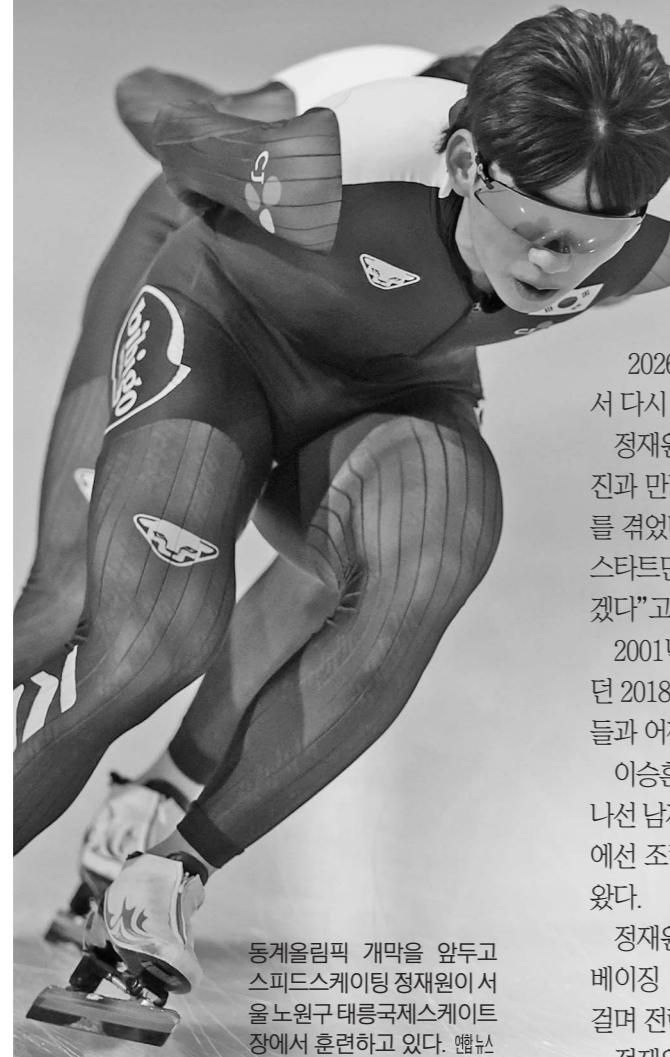
풋살대표팀은 지난해 9월 페르난데스 감독 선임 직후 중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출전해 경쟁력을 강화했고, 같은 달 태국에서 개최된 풋살 아시안컵 예선에서 태국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하며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빙속 정재원, 올림픽 3회 연속 메달 도전…“가장의 책임감”

만 24세에 세 번째 올림픽 출전…매스스타트 메달 유력 후보

2년 전 결혼하고 최근엔 소속 팀도 이적…새 환경서 도약 준비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정재원(24·강원도청)이 새로운 환경에서 올림픽 3회 연속 입상에 도전한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팀 추월과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던 정재원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다마조 동계올림픽에

서 다시 한번 메달 사냥에 나선다. 정재원은 지난 8일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올림픽을 마친 뒤 많은 변화를 겪었다”면서 “이번 올림픽엔 주 종목인 매스스타트만 출전하는데, 잘 준비해서 꼭 메달을 따겠다”고 다짐했다.

2001년생 정재원은 동북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8년 평창 올림픽에 출전해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승훈, 김민석(현 평창 국가대표)과 함께 나선 남자 팀 추월에서 2위에 올랐고 매스스타트 예선 조력자로 나서 이승훈의 금메달 획득을 도왔다.

정재원은 이후에도 정상급 기량을 이어갔다. 베이징 올림픽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전략가의 입지를 다졌다.

정재원은 벌써 세 번째 올림픽에 출전하지만, 여전히 젊고 강하다.

그는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1~4차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 네 차례 경기에서 2개의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선전하며 월드컵 랭킹 4위에 올랐다.

다음달 6일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다마조 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의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힌다.

경쟁자들은 경쟁하다.

세계랭킹 1위 요리 베르흐스마(네덜란드), 흄 이점을 누린 안드레아 지오바니(이탈리아), 베이징 올림픽 매스스타트 금메달리스트 바르트 스트리스(벨기에), 미국 빙속 간판 주종민 매스스타트만 출전하는데, 오로지 이 종목 준비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원은 최근 많은 변화를 겪기도 했다. 그는 2024년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새해엔 의정부시청에서 강원도청으로 소속 팀을 옮겼다.

정재원은 결혼 후 올림픽에 출전하는 건 처음인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